

화교(華僑), 동아시아적 보편사의 존재 증명

[서평]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760쪽.

장 용 경*

1. 한국사에서 ‘동아시아 화교사’ 읽기

이 글에서는 최근 발간된 이정희의 『한반도 화교사』(2018, 동아시아)를 ‘근현대 동아시아 경험의 차이’와 ‘화교의 위상’을 키워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 식민지기 사상사를 전공하고 있어서 ‘화교’를 다룬 이 책에 대한 적절한 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화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연구 대상이기도 해서 반드시 동아시아적 관점에서만 화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동시에 한국사에서 화교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화교 연구 시각을 상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힘입어, 일본 및 한국 동양사학이라는 ‘주류 시각 밖’인 한국사의 관점에서 이 책을 논하기로 하겠다.

처음 제목만으로 이 책을 접했을 때 ‘한국 근현대 화교들은 한반도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는 공간에 어떻게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어떤 곡절을 거쳐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이었던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과 조선총독부, 해방 후 남북한 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 추측했다. 물론 이 책은 그런 사실들을 다루고는 있다. 저자 역시 자신의 연구가 “누구나 품을 만한 의문을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독서가 진행되면 될수록, 한반도의 경계선은 흐려지고 무대는 바다를 건너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져 결국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상정해야만 이 책이 그리는 역사상을 흐릿하지 않고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은 한국에서 소수자 또는 식민지기 피식민 연대의 대상이라는 화교사 연구의 흐름과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이 간극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논점의 하나이다.

『한반도 화교사』는 일본에서의 ‘아시아 교역권론’이라는 연구 동향에 근거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강진아, 이정희,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 왕언메이(王恩美) 등 여러 학자들의 굵직한 화교 연구 성과가 속출했다. 그간의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문명기는 “동아시아 연구를 배경으로 한 화교사 연구는 많은 반면, 한국사 연구를 배경으로 하는 화교사 연구는 드문 형편”으로 “한국사 연구자들의 화교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다면 한국 근현대의 한국사상은 어떻게 변화할지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화교사 연구의 성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서 화교 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변명의 수준에서라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배경의 논의들과 한국사의 주체가 근현대에 경험한 동아시아와의 거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1) 문명기(2018), 「한국화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 2010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68집, pp. 202-206 & p. 224.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화교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 이 책이 놓인 맥락과 서술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책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동아시아 광역 경제권과 일본사를 상충 없이 매개해주던 ‘능동적 주체’로서의 화교의 위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을 비롯한 여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화교사 연구에 대해 한국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를 동아시아에 대한 조선인 존재와 의식의 괴리라는 문제를 통해 접근하기로 하겠다.

2. 『한반도 화교사』의 구성과 서술 목표

먼저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자.

750여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는 저자의 화교 연구 공력이 축적되어있다. 저자는 ‘한반도 화교사’라는 제목 아래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리고 조선화교, 한국화교, 북한화교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서 ‘한반도 화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화교 직물상, 중국 요리점, 화공(華工), 화농(華農)들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및 그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을 ‘경제사’라고 하였다. 이정희는 이 책을 통해 개항기 ‘두려워해야 할 강적’이자 식민지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던 화교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실 및 그 원인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에 사료에 근거하여 “화교 인구의 증가, 화교경제의 발전 및 상당한 세력의 형성, 그리고 1930년대 이후 급격한 쇠퇴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조선총독부 관방 외사과의 자료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의 『治安狀況』, 대만 중앙연구원 근현대사연구소의 『駐

韓使館保存檔案』 및 국사관(國史館) 소장 외교 당안(檔案), 중국 제2역사당안관 소장 당안(檔案)을 기본 사료로 활용하였고, 여기에 대구 및 인천 화교협회 문서들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및 일본에서 이미 간행된 사료들 및 정기간행물, 구술 자료까지 포함시켜서 가히 이 책의 집필을 위해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였다.

한반도 화교 경제사 분석을 위한 시간 및 공간 단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시기적으로 1880~1940년대,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설정했다. 조선화교의 경제와 사회는 송출국인 중국, 수용국인 조선이라는 두 나라 사이의 이동으로 이뤄졌지만, 화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은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규정되는 바가 컸다. 또한 화교의 경제활동은 조선을 축으로 중국(만주 포함)은 물론이고 일본, 극동아시아, 홍콩에 걸쳐 전개되었기 때문에 조선화교의 분석을 위해서는 동아시아라는 역사 영역 및 공간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 축은 중국인의 조선 이주가 1880년대 초부터 조선의 해방 초기까지 약 60년이라는 장기간을 설정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조선 이주 및 조선에서의 경제활동의 실태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이다.²⁾

시간상으로는 한반도에 화교가 처음 들어오는 임오군란 이후부터 냉전 이전까지,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라는 영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한국, 중국-일본 사이 화교 유동에 대한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1945년을 시간상 종점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2)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p. 38.

구성은 아래와 같다.

서장: 중국인의 조선 이주와 ‘중국 충격’

1부: 화교 직물상

2부: 삼도업

3부: 제조업

4부: 화농

5부: 화공

종장: 근대사 속의 조선 화교

서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고, 종장에서는 한반도 화교들의 경제적 활동과 위상이 동아시아근대사, 조선근대사, 화교근대사의 측면에 던져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정리하였다. 총 5부로 구성된 본장에서는 각 부의 하위에 2~6개의 장을 두어 화교들의 업태별·시기적 상황과 경향을 서술하였다. 제1부 「화교 직물상」에서는 화교 직물상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상, 화교 직물상의 수입 통상망, 조선 내 유통망, 조선총독부의 화교 직물상에 대한 대응, 1931년 화교배척사건이 화교 직물상에 미친 영향 및 중일전쟁 시기 화교 직물상의 몰락을 부문별·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2부는 「삼도업」(三刀業)에 관한 부분인데, 중화요리점의 형성(1880~1920년대)과 발전, 위기와 응전(1927~1945)이란 제목으로 2개의 장을, 화교이발소와 양복점이란 제목으로 1개 장을 배치하였다. 제3부는 「제조업」으로서 주물업 및 양말 제조업을 다루었고, 제4부는 「화농」(華農)에 관한 부분으로 화농 채소 재배의 형성·발전·위축의 과정을 다루었다. 마지막 5부 「華工」에서는 광량만염전 축조 공사 및 성당건축 시공 활동에서의 화공 문제를 다루었다.

각 장마다 ‘맺음말’을 두어 해당 장의 서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또 각 부마다 ‘제○부를 마치며’라는 란을 두어 각 부에서 다룬 내용이 ‘동아시아

아 근대사’, ‘조선근대사’, 그리고 ‘화교근대사’에 시사해주는 바를 정리 하였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의미를 이 글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상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부분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 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인의 조선 이주는 동아시아 역내 사람 이동의 環節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 즉 화교 이주는 동아시아 역내 사람·상품·화폐·정보 이동의 일부로서 그것을 촉진하는 공간이자 계기였다는 점.
- 2) 조선에서 화교는 상당한 세력의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사(특히 일제강점기)의 역사 영역은 화교 및 화교자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 3) 위 두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근대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화교의 비교가 가능했다는 점, 즉 조선 화교와 일본 화교·동남아 화교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유사점의 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³⁾

여하튼 이정희의 『한반도 화교사』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졌던 조선 화교의 경제사 각 분야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해낸 역작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를 통해 “대체로 화교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세계 어떤 국가보다 미약하였다는 점이 한국 화교의 주된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는 한국 화교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기에 “예외적 존재로만 인식되어오던 조선을 광역적인 동아시아 시장의 흡수할 수 없는 구성부분으로 위치”⁴⁾ 시킬 수 있었다. 조선화교의 존재 및 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세력이었다는 것은, 조선도 이른바 동아시아적 ‘보편사’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존재 증거이었던 것이다.

3) 이정희, 위의 책, p. 633.

4) 문명기, 위의 글, p. 202.

3. 번역의 무의식과 동아시아 화교사의 성립 조건

이 책의 저본은 2012년 일본 교토대학 학술출판부에서 간행된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라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에서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래는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화교와 근대 동아시아』를 단순히 번역 출판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학자적 양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결국 필자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번역의 외중에 한국 학회지에 게재된 4개의 논문, 즉 ‘三刀業’에 관한 2부의 3개장과 제16장 성당 건축에서 ‘華工’의 역할을 다룬 부분을 포함시켰다.⁵⁾ 번역 과정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역 과정 중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오자와 탈자를 발견하여 바로 잡았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추가했다. 번역 및 수정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화요리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조선화교가 중화요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⁶⁾

일본어로 쓴 박사논문을 오자와 탈자를 수정하여 번역하고,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합하여 『한반도 화교사』를 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기에 ‘번역자의 말’ 등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쓰인 책이 한국어로의 변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별도의 표식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번역과 논문의 통합 과정이야말로 일본 동아

5) 이정희, 위의 책, pp. 720-721.

6) 이정희, 위의 책, p. 721.

시아 화교사의 성립 조건 및 일본사에서 화교의 위상이 한국사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무의식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타자만 수정하고, 국내에서의 화교 연구를 추가해도 무난하게 하나의 완결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번역서임을 밝히거나 아니면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開港・華商・帝國』(2016)의 저자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는 “화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이나 사회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화인의 국내 활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을 전제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부족”해서 “화인을 그 사회의 주변적 존재로 그려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근대 아시아 경제를 개별 국가들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파악하려는 연구 시각이 제창되었으며(아시아교역권론), 그 담당자로서 화인이 주목”되었고, 여기에서 화교를 “아시아 광역 시장의 중심적 담당자로 포착하여 그에 일본을 연결해주는 매개로 자리매김?”하는 연구가 나왔다고 하였다. 아시아 교역권이라는 연구 시각에서 화교의 위상이 일본사와 아시아 광역 시장을 매개하는 역할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화교사 연구를 촉발한 계기였는데, 과장해서 말하면 일본에서 일본사와 아시아 교역권의 매개자로서의 화상이 상충(相衝)되지 않을 수 있었기에, 아시아 교역권론을 배경으로 한 화교사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화교사 성립의 조건과 화교의 위상이 한국에서도 무리 없이 번역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주장은, 지금은 미약해졌지만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화교들이 상당한 세력을 차지하

7) 石川亮太(2016), 「화교·화인의 시점에서 본 아시아 속 조선 개항」, 『역사비평』 114, pp. 85-86.

고 있었고, 그만큼 한국도 동아시아 광역 경제권의 ‘외톨이’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참한 이야기지만, 개항 이후 조선 정부와 식민지기 조선인들은 화교에게 적절한 자리를 내줄 수 없었다. 저자는 조선에서 화교가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아닌 외국인의 입장⁸⁾”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1931년 화교배척사건이 조선인-화교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화교의 위상은 동일할 수 없다. 한국사 전공자 장세운은 만보산사건 전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한·중 양 민족은 한때의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연대해 가는 모습⁹⁾”을 보였다고 했지만, 화교와 조선인 관계의 본질은 배화사건에 있었지 사건 이후 반제 연대라는 이상에 있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조선인과 화교가 서로 상충(相衝)하고 있었던 식민지¹⁰⁾에서, 동아시아 광역 경제권에서 조선사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상당한 화교 세력을 부각시키면 할수록 조선인의 입장은 더 궁색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왜소한 주체와 험난한 동아시아

문제는 이러한 상충(相衝)이 조선인-중국인이라는 존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조선이 식민지였다는 점을 들어 민족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가 ‘식민지 근대’라는 체제

8) 이정희, 위의 책, p. 632.

9) 장세운(2003),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 (1), p. 231.

10) 박준형(2018), 「한국 화교 다시 보기 — ‘낯선 과거’와 ‘익숙한 미래’ 사이에서」, 『역사비평』 124 참조.

속에 처한 조선인의 자세와 입장을 부르는 이름이라면 그렇게 부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세계적 존재와 ‘민족주의적’ 의식, 존재와 의식의 괴리. 이 문제로부터 한국사에서의 화교 연구의 부진을 이야기해보자.

앞서 언급한 이시카와는 일국사에서 광역적 경제권으로의 시각 변화를 주장하면서 조선 개항장 무역에 관한 시각의 국한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개항기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에 관해 고찰할 때, 조선인 상인 스스로가 해외 시장과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적었던 까닭에 개항장에서의 외국인 상인과의 관계가 주로 검토되었다. 그 자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 상인의 활동이 조선의 개항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개항장에서 조선인과 대치하는 국면만 잘라내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 화상만 보더라도 국제시장과의 관계맺음이나 네트워크의 확장 과정은 다양했으며, 이는 당연히 조선에서의 활동 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¹⁾

조선인 상인 스스로 해외 시장과 거래하는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조선의 무역을 논하려면 개항장에서 조선인과 대치하는 국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외국 상인의 활동이 조선의 개항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조선인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가 개항장뿐이었다거나 아니면 국제시장에서 종속적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적 자각일 뿐이다. 존재는 자각 없이도 세계시장에 연결되어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조선인의 동아시아 경험은 주체적이거나 자각적이지 못했다. 근대 조선인 동아시아 경험의 대중은 징병 및 징용, 일본과

11) 石川亮太, 위의 책, p. 106.

중국으로의 노동 이민, 더 심하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 경험이었다. 모두 ‘피해’와 ‘동원’의 경험으로, 이러한 ‘당함’의 외중에서 자신의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동아시아는 너무 험난했고 주체는 너무 왜소했다.

식민지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조선의 ‘향토성’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기서의 향토성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의 번역을 전제로 하고 일본이라는 제국의 눈에 이국적인 대상을 비취 그러한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주체와 그들 공간의 관계가 단순히 자각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문제는 “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심지어 인식론적으로 민감한 문제”¹²⁾이다. 경험과 그 의식 사이에 식민주의가 개재해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사 주체의 경험이 동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능동적 주체로 설정된’ 화교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게 하는 것일지 모를 일이다.

동아시아가 피해 기억을 환기시키는 장소이기에 그것에 방파제를 치고 돌아앉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식민주의와 냉전 체제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전유할 수 있는 주체 없이는, 위에서 말한 의식과 존재 괴리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배경’의 동아시아와 ‘근현대 한국사 주체가 경험한’ 동아시아가 어긋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간극에서 웅졸하고 의구심 많았던 피해자 주체가 전환될 여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에 대한 고발자로서도 역시 역사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의 주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2) 클리퍼드 기어즈(1988), 김병화 역(2004),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문학동네, 164쪽.

참고문헌

- 강진아(2012), 「만주사변 전후 재한화교 문제의 양상 — 朝鮮總督府外事課와 在韓中國領事館 간 왕복문서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동양사학회.
- 문명기(2018), 「한국화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 2010년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8,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박준형(2018), 「한국 화교 다시 보기 — ‘낮선 과거’와 ‘익숙한 미래’ 사이에서」, 『역사비평』 124, 역사비평사.
- 왕문영·국백영 등 구술(2007),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 王恩美(2016), 「해방 70년, 한국화교에 대한 이해」, 『역사비평』 115, 역사비평사.
- 石川亮太(2016), 「화교·화인의 시점에서 본 아시아 속 조선 개항」, 『역사비평』 114, 역사비평사.
- 이정희(2018), 『화교가 없는 나라』, 동아시아.
- 장세윤(2003),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 (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클리퍼드 기어츠(1988), 김병화 역(2004), 『저자로서의 인류학자』, 문학동네.